DAOL 다올투자증권

Market Weekly

check ME up!

Macro

Event

2026년 1월 2주차

리서치본부 투자전략팀

조병현 투자전략 | bhcho@daolfn.com

Ⅰ. Weekly Review *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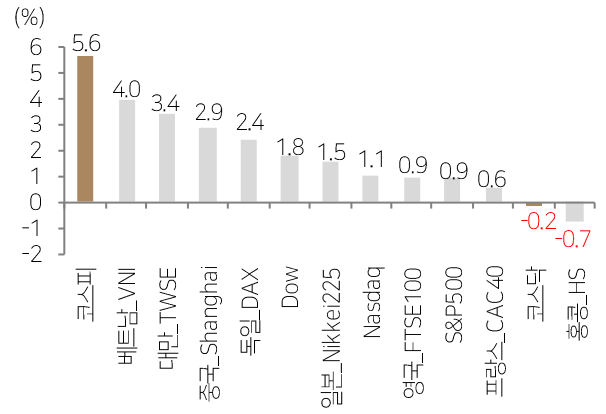
Ⅱ. 경제지표 Preview *3p*

Ⅲ. 이벤트 일정 & 증시 동향 및 전망 *4p*

Ⅳ. Key Chart & 핵심지표 *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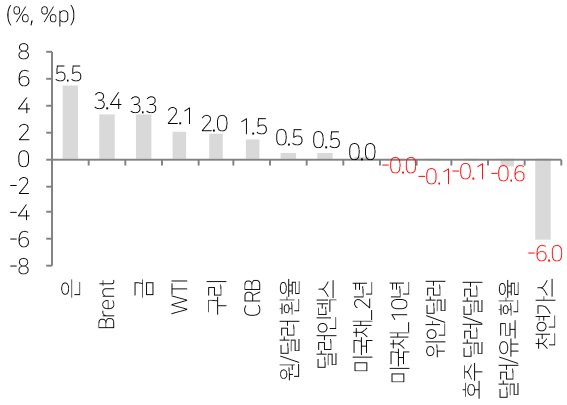
I . Weekly Review

글로벌 증시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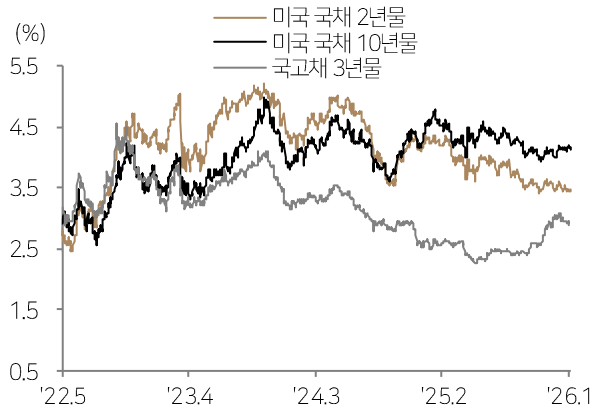
Note: 수익률은 12/12일 대비 12/18일 종가 기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글로벌 FICC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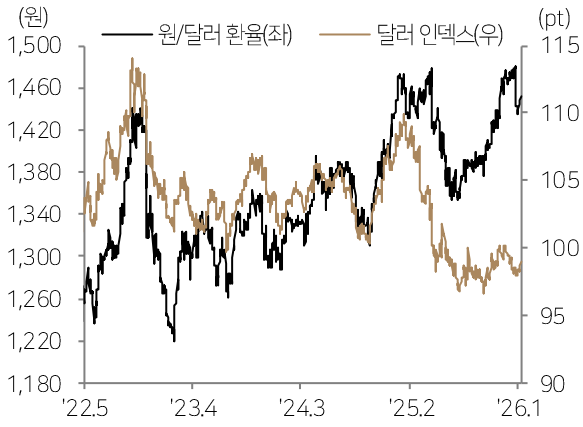
Note: 수익률은 12/12일 대비 12/18일 종가 기준. 미국 국채는 %p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채권 수익률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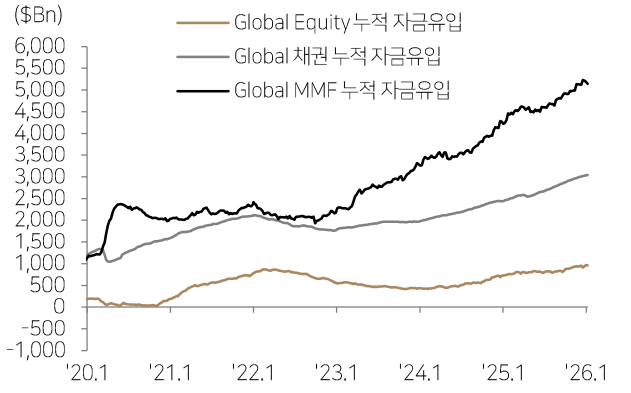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다올투자증권

달러 인덱스 및 원/달러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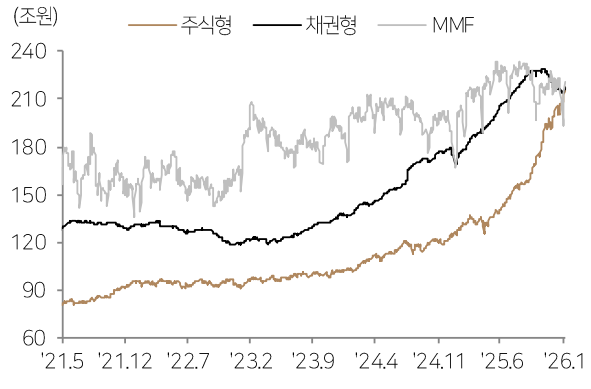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글로벌 펀드 플로우



Source: Refinitiv, 다올투자증권

국내 자금동향



Source: Check Expert, 다올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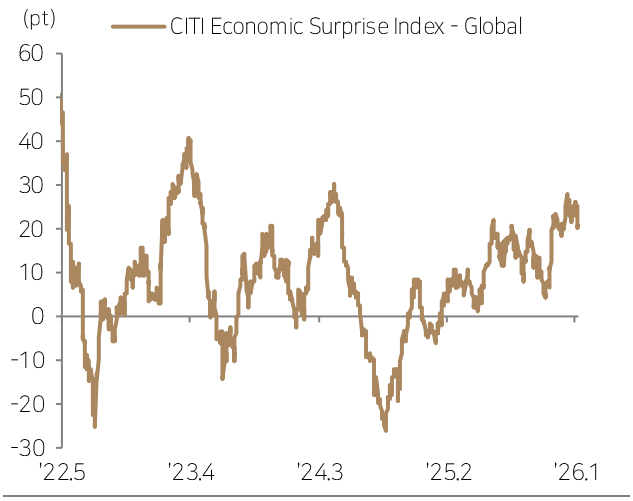
Ⅱ. 경제지표 Preview

- 미국 물가지수들이 발표될 예정. 지난 11월 CPI의 경우 예상보다 크게 낮아진 물가 수준이 안도감 보다는 통계에 대한 불신으로 받아들여진 바 있음. 셧다운 해제 이후 통계 완성도가 회복된 시점의 물가지표가 어떤 방향성을 보이는지가 중요. 고용지표의 둔화는 이미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3% 이내에서 인플레이션의 안정이 확인된다면 강한 증시 흐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10일까지의 잠정 수출도 체크해 볼 필요. 1~2월은 계절적 비수기이나 12월 수출이 사상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4분기 전반적으로 수출 레벨이 높아진 모습. 1월에도 600억$ 내외의 수출이 이어질 경우 실적 전망에 대해서도 긍정적 전망이 강화될 여지가 있음

일자	국가/지역	일정 및 이벤트	단위	예상치	이전치
2026-01-12	한국	1월 10일까지 수출/입	%yoy	-/-	17.3/8.0
2026-01-13	미국	12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2.7	2.7
2026-01-13	미국	12월 NFIB 소기업낙관지수	Index	-	99.0
2026-01-14	중국	12월 수출/입	%yoy	2.4/0.8	5.9/1.9
2026-01-14	중국	12월 무역수지	억달러	1133.5	1116.8
2026-01-14	미국	11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2.6	-
2026-01-14	미국	10월 신규주택매매	만건	70.9	-
2026-01-15	일본	12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	2.7
2026-01-15	미국	1월 뉴욕 제조업지수	Index	1.0	-3.9
2026-01-15	미국	12월 기존주택매매	만건	423	413
2026-01-15	미국	1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	Index	-	-10.2
2026-01-16	미국	12월 설비가동률	%	76.0	76.0
2026-01-16	미국	12월 광공업생산	%mom	0.2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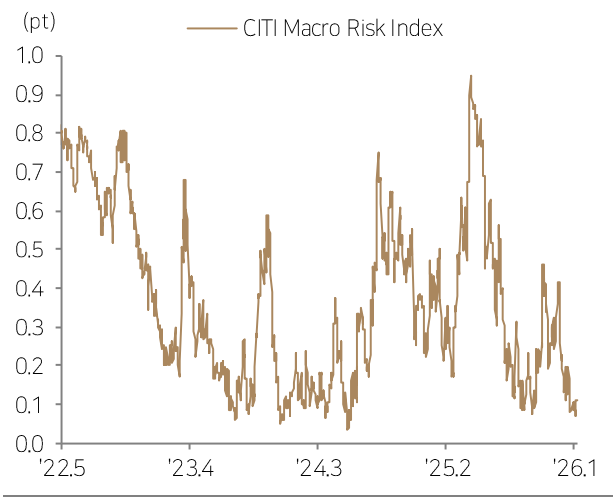
Note: 경제지표 발표일정은 한국시간 기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경제 서프라이즈 인덱스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III. 이벤트 일정 & 증시 동향 및 전망

일자	국가/지역	중요도	일정 및 이벤트	내용
01/12 ~15일	미국	중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 글로벌 최대 헬스케어 컨퍼런스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1월 12~15일 간 진행 예정. 한국 기업 중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휴젤, SK바이오팜 등이 주요 세션에 참가해 발표를 진행할 예정
01/14	미국	상	연준 베이지북 공개	▪ 10월 FOMC 이후 공개된 베이지북에서는 대부분 지역의 경제 활동이 이전 보고서(10월) 이후 변화가 거의 없음. 고용은 약간 감소하였으며, 임금은 대체로 완만한 속도로 증가. 물가는 완만하게 상승하였으며, 관세 영향을 반영하여 제조업과 소매업을 중심으로 원가 압력이 광범위하게 나타남
01/15	한국	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 성장 측에서는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과 함께 금융안정 리스크에 무게를 두고 금리 동결 결정. 한은은 지난 5월 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인하한 이후 4회 연속 동결 ▪ 11월 열린 금통위에서 동결 지속 가능성과 추가 인하 가능성을 모두 열어뒀다고 언급한 바 있지만, 환율 등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인하조치를 기대하는 시각은 많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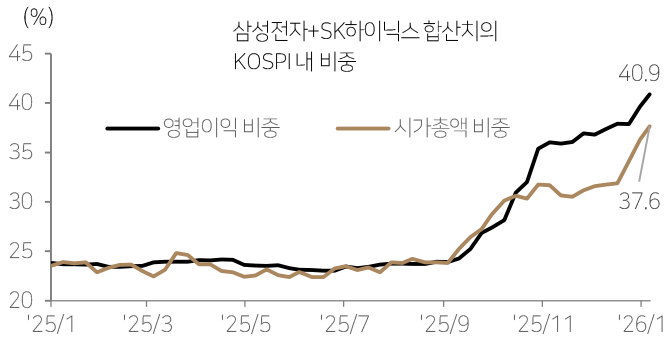
Note: 이벤트 발표일정은 한국 시간 기준
Source: 다올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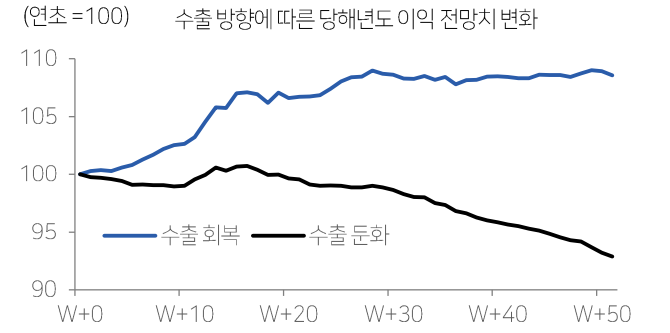
일자	내용
금주 (01/05~01/08) 증시 동향	▪ KOSPI(+5.6%) 상승, KOSDAQ(-0.2%) 하락. KOSPI는 상사,자본재(+10.5%), 조선(+9.8%), 반도체(+9.5%)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비철,목재등(-4.3%), 화장품,의류,완구(-4.1%), 호텔,레저서비스(-3.4%) 업종 하락. 주초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기대감에 반도체 업종이 지수 상승을 견인. CES 2026에서의 젠슨 황 CEO 메모리 업황 낙관론 및 현대차-엔비디아 회동 등의 호재가 더해지며 4,600선을 상회. 주중 지정학적 리스크 등 이슈로 방산 업종도 강세 연출. 이후 삼성전자의 4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지수 고점 부담에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4,550pt에서 마감 ▪ DOW(+1.8%), NASDAQ(+1.1%), S&P500(+0.9%) 상승. 베네수엘라 산업 재건 기대에 에너지와 금융 등 전통 산업주 위주로 상승 출발. CES 2026에서 젠슨 황의 메모리 중요성 강조로 기술주 랠리가 이어졌으나, 주 중반 트럼프의 부동산 규제 등 발언과 경제지표 혼조에 고점 부담이 부각. 이후 고용지표 호조에도 고용보고서 발표 경계감에 기술주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혼조세로 마감
차주 (01/12~01/16) 증시 전망	▪ 이익 전망치의 상향조정을 수반한 강한 상승 국면이 재개되고 있음. 일반적으로 기대가 낮은 4분기 실적이지만, 전일 삼성전자가 컨센서스 상단 수준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26년 이익 전망치 역시 자극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이익 전망치의 가파른 상향조정 속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쇄되는 흐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특히 26년 1분기는 지난해 낮은 수출 기저 영향으로 수출 증가율이 상당히 높을 수 있으며, 이는 이익 전망치의 상향을 뒷받침하는 소재 ▪ 이익 전망치의 상향조정 폭이 크지만, 전역적인 상향이 아니라 특정 산업에 극단적으로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반도체가 대부분의 이익 상향을 견인하는 가운데 조선, 상사/자본재(방산), 헬스케어, 화장품 등 대부분 익숙한 업종들에서 전망치 상향이 진행되고 있음. 반도체의 주가 상승이 빨랐다고는 하지만 아직 시장 이익 대비 시총비중이 낮은 상태인 만큼 주도주 지위를 놓치진 않을 것으로 판단. 주도주의 상승탄력 둔화 구간에서의 대안도 언급한 실적 전망 상향 업종 내에서 선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Note: 수익률은 전주 금요일 종가 대비 금주 목요일 종가 기준
Source: 다올투자증권

Ⅳ. Key Chart & 핵심지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견인하고 있는 실적 전망치 상향과 주가 상승. 추가 상향 가능성도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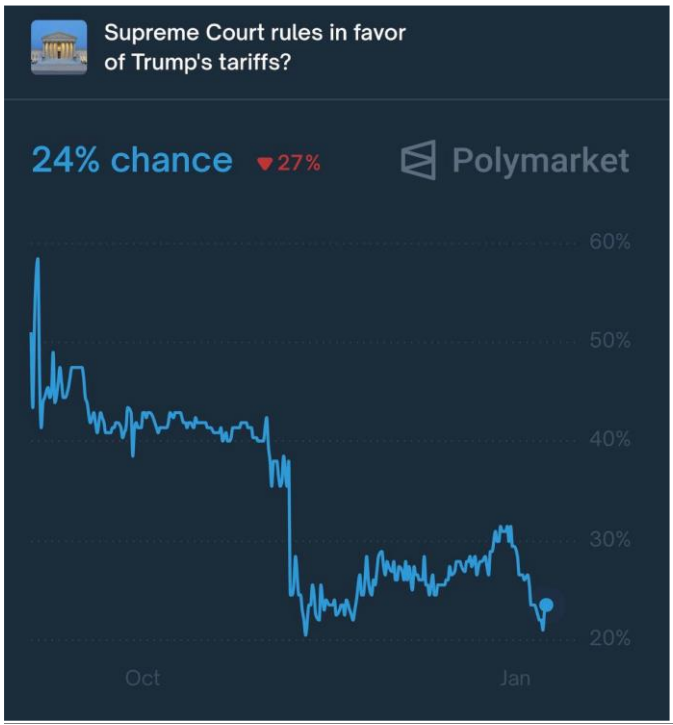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 전일 삼성전자가 컨센서스 상단 수준의 4분기 실적을 발표. 26년도 이익 전망치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음
- 시장 이익 전망치는 12월 중순부터 다시 가파른 상승이 재개되며, 최근 4주간 36.8조원 상향 조정되었는데, 이 중 80%를 삼성전자(48.2%)와 SK하이닉스(32.8%) 두 종목이 견인. 같은 기간 동안 주가 상승에 있어서도 두 종목의 견인력이 절대적. 이번 상승 국면의 단기 저점인 12월 18일을 기준으로 KOSPI 시가총액 증가분의 75%를 삼성전자(41.5%), SK하이닉스(33.4%)가 견인
- 26년 영업이익과 시가총액 비중을 보면 아직 이익 비중을 시총 비중이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 더불어 이번 실적발표 전후로 이익 전망치의 추가 상향 가능성이 높음. 실제로 삼성전자의 컨센서스는 106조원 수준이나 최근 제시된 상단은 150조원 수준에서 형성
- 당사는 한국의 1분기 수출이 두 자리 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이익 전망치의 추가 상향 가능성이 충분해 보임

트럼프 관세 정책 위법성 여부 판결 9일 발표 가능성 제기(미확정), 시장 컨센서스는 트럼프의 패배로 기운 모습



Source: Polymarket, 다올투자증권

- 미 연방대법원은 9일 중대 사건 선고를 예고. 사건이 특정되진 않았지만, 관세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 제기. 쟁점은 트럼프가 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이 법적 허용범위 이내인지 여부. 시중에서는 위법 가능성이 76%로 높게 형성 중
- 위법 판결 시 관세 환급과 재정 우려가 형성되며 일시적 금리 상승과 시장 변동성 확대가 예상. 약 1,300~1,600억$의 환급이 발생할 수 있고, 2심 이후 1,000여개 기업들이 관세 소송 진행 중. 관세가 향후 10년간 재정적자 3.7조$를 충당한다는 추계도 존재. 단, 영향이 장기화되진 않을 듯. 무역법 122조(150일내 15% 관세 부과)를 활용하면서 301조(특정 국가 관세 부과)나 232조(안보 위협 시 조사 후 산업 관세 부과) 등을 통해 관세를 이어갈 개연성 큼
- 자동차나 철강 등 관세 부담이 있었던 산업의 반사이익이 언급되기도 하지만, 해당 산업은 IEEPA에 의한 관세가 아니라 무역법 232조에 의한 관세가 적용

www.daolfn.com

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본사영업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27층

DAOL 다올투자증권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나,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당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의사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투자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복제, 인용, 변형할 수 없습니다.